

니체: 힘에 대한 의지

WILL TO POWER

저자 : 막 심현



#1: Leben(삶/생명)

#2: Weisheit(지혜)

니체는 생명을 긍정하고 인정하는 태도에서 출발한다.

호생지덕(好生之德).

니체 철학에서는 이를 '삶에 대한 총체적 긍정' (total affirmation of life)이라 부른다.

니체는 삶의 에너지와 바이탈리티를 <힘에 대한 의지>라고 불렀다.

'힘'을 '권력'이라고 본 것은 나치와 일제에 의한 니체 왜곡일 뿐이다.

니체는 권력이 아니라 지혜를 중시했다.

니체는 삶과 지혜를 동전의 앞뒤 면, 일관성 쌍둥이로 보았던 것이다.

삶이 변어나갈 수 있는 길을 찾는 눈 니체는 이를 지혜라고 생각했다.

니체: 힘에 대한 의지 WILL TO POWER

저자 : 박 성현



#1: Leben(살/생명)

#2: Weisheit(지혜)

니체는 생명을 긍정하고 인정하는 태도에서 출발한다.
호생지덕(好生之德).
니체 철학에서는 이를 '삶에 대한 총체적 긍정' (total affirmation of life)이라 부른다.
니체는 삶의 에너지와 바이탈리티를 <힘에 대한 의지>라고 불렀다.
'힘'을 '권력'이라고 본 것은 나치와 일제에 의한 니체 왜곡일 뿐이다.
니체는 권력이 아니라 지혜를 중시했다.
니체는 삶과 지혜를 동전의 앞뒤 면, 일관성 방편으로 보았던 것이다.
삶이 벌어 나갈 수 있는 길을 찾는 눈 니체는 이를 지혜라고 생각했다.

니체_힘과 진실

- 출판사 | 두두리
 - 저자명 | 박성현
 - 공헌자 | 알수없음
 - 출판일 | 2010-10-25
-

책소개

저작권

본 Mebook의 저작권은 두두리에 있습니다.

? 두 명의 여인들

니체에게는 두 명의 여인이 있었다. 한 여인의 이름은 <삶>, 다른 여인의 이름은 <지혜>이다. 잠깐, 나를 향해 욕하는 소리가 들린다.”야! 너! 지금 장난하냐? 니체가 만만해?

천만에! 나는 정색을 하고 이야기하는 중이다. 니체 자신이 삶과 지혜에 대해 ‘여인’이라고 불렀다. 그의 말을 한 번 들어 보자.

한 번은 <삶>이 내게 물었지.

“그 <지혜>라는 여자.... 그 여잔 누구야?”

그래서 열심히 대답했어.

“그래! <지혜>!

갈구하지만 결코 만족을 이룰 수 없는 여인.

보지만 베일 통해 보는 여인.

잡지만 그물 위로 잡는 여인.

아름답냐고? 잘 모르겠어.

하지만 똑똑하다는 노회한 놈들도 그녀에게 빠지지.

<지혜>는 번덕스럽고 콧대가 세.

화가 나면 입술을 깨물기도 하고 머리를 마구 빗기도 하지.

아마 사악한 거 같아. 아마 전부 꾸며 내는 가식인 거 같아.

모든 점에서 영락없는 창녀지.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할 때면

아, 정말 아찔하게 유혹적이지.”

<삶>에게 <지혜>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삶>은 악의 찬 웃음을 깔깔대며 웃더군.

그리고 눈을 감고 말했어.

“도대체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바로 내 이야기 아니야?

네 말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그 이야기를 내 얼굴에 대놓고 해?

아무튼! 이제, <지혜>란 여자에 대해 진짜로 이야기해 봐!”

(‘짜라두짜는 이렇게 말했지’ 32:23~32:29)

니체는 멋진 비유를 사용하기 위해 삶과 지혜를 여인으로 나타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니체가 엄청난 스타일리스트인 것은 맞다. 그는 독일어를 운문처럼 사용했다. 그의 문장은 괴테나 루터의 글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고들 한다. 특히 ‘짜라두짜는 이렇게 말했지’ 부터 시작되는 그의 후기 작품들은 매우 간결하고 명징한 문체로 이루어져 있다..

니체가 어렵다면, 문장이 꼬여있거나 서술이 비의적(秘意的,, esoteric)이기 때문이 아니다. 사상의 템포가 빠르고 어감의 날씨가 변화무쌍하기 때문이다. 템포에 처지고 어감을 놓치는 사람의 경우, 일종의 난독 상태에 빠질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번역한 사람조차 이런 난독 상태에서 꾸역꾸역 원고지를 메운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 번역문을 읽는 독자는 니체 사상의 어렵פות한 그림자만 밟을 수 있어도 행운이다.

융은 니체에 대해 자기 자신의 심리를 가장 깊고 치열하게 파고들어간 사람이라고 말했다. 니체의 사상은 생각이 아니라 경험이다. 그 자신의 말대로 ‘피(血)로 쓴 글’이다. 니체는 삶이나 지혜를 이미지로 마주했을 게다. 그리고 그 이미지의 모습은 여자였을 게다. 그래서 삶과 지혜를 여자로 표현했을 게다. 앞의 인용문에서 니체는 <삶>과 <지혜>가 쌍둥이처럼 닮은 여인들이라고 말한다.

도대체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바로 내 이야기 아니야?

네 말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그 이야기를 내 얼굴에 대놓고 해?

아무튼! 이제, <지혜>란 여자에 대해 진짜로 이야기해 봐!

니체의 관점에서는 삶과 지혜는 일란성 쌍둥이이며, 동전의 앞뒤이다. 니체의 생각처럼, 삶이 번어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내는 것이 지혜라면, 삶을 사랑하는 태도가 곧 지혜로운 사람을 만들어 준다고 보아야 한다. ‘삶’에 대한 전폭적 수용? 이것이 바로 지혜의 출발점이다.

“지혜로워지고 싶은가? 그렇다면 삶을 사랑하도록!”

“잘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지혜로워 지도록!”? 이게 니체의 관점이다.

영어(life)와 독일어(Leben)에서는 삶과 생명이 한 단어로 나타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삶을 사랑하는 태도는 곧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이다. 호생지덕(好生之德). 니체는 삶을 온 몸으로 보듬어 안는 태도를 찬양했다. 삶에 대한 총체적 긍정(total affirmation of life). 니체는 자기 자신의 말대로 니힐리즘의 아이, 데까당의 아이였다. 죽음과 허무를 찬양하는 사상에 의해 길러진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러한 니체가 삶에 대한 총체적 긍정에 이르는 고속도로를 발견해 낸 것이다. 그래서 니체를 야말로 니힐과 데까당을 죽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제우스가 아비 크로누스를 죽이는 데에서 시작하는 그리스의 살부(殺父, patricide) 신화는, 아비 데까당(니힐)을 죽인 니체에서 완성됐다¹.

1) 니체는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 고전 문헌 학자로서, 신 (神) 디오니소스를 찬양했다. 디오니소스는 부활, 삶, 생명, 환희, 춤에 대한 찬양으로 해석된다.

? 힘에 대한 의지

<힘에 대한 의지>는 모든 삶, 모든 생명의 자연스런 존재 양태이다. 암 세포, 바이러스, 박테리아부터 이순신과 아브라함 링컨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은, 어려움에 도전하여 주변을 장악하려는 바이탈리티, 그 자체일 뿐이다. 니체는 생명의 에너지와 바이탈리티를 <힘에 대한 의지>라고 불렀다.

자네, <정말 슬기로운 사람>! 내 말 들어 봐!

내가 생명 한가운데로 제대로 기어 들어가 알아낸 것인지,

내가 생명의 뿌리로 제대로 파고 들어가 알아낸 것인지

직접 실험해 봐!

<살아 숨 쉬는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힘에 대한 의지>가 있어.

(‘짜라두짜는 이렇게 말했지’ 34:21~34:22)

니체는 삶이 <힘에 대한 의지> 그 자체이며, 도전에 대한 목숨을 건 투쟁이며, 새로운 도전을 끊임없이 찾아내는 여행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생존과 웰빙을 떠받드는 <생존에 대한 의지>에 대해 코웃음을 친다. 자신이 소중한다고 여기는 것, 즉 자신의 <가치 평가>를 위해 희생, 인내, 위험, 도전, 죽음을 무릅쓰는 것이 삶이기 때문이다. 소중한 것이 없는 인생? 이것은 이미 인생이 아니라고 니체는 생각했다.

<생존에 대한 의지>를 가르치는 사람은 진실을 벗어난 거야.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아.

생존에 대해 의지하려면 의지하는 자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고 있지 않아야 되잖아?
존재하고 있지 않은 데 어떻게 의지하지?
거꾸로, 이미 존재하고 있다면 새삼스레 또 생존에 대해 의지할 수 없잖
아?

생명이 있는 곳에는 의지가 있어.
<생명에 대한 의지>가 아니라
내가 가르친 대로 <힘에 대한 의지>가 있어.

살아 숨 쉬는 생명은
생존보다 높게 <가치평가>하는 것들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어.
하지만 이 <가치평가>는 결국 무엇을 나타내지?
<힘에 대한 의지>, 바로 그것을 나타내.
(‘짜라두짜는 이렇게 말했지’, 34:33~34:36)

삶과 생명의 바이탈리티를 전폭적으로 수용한다고 해서, 삶과 생명의 <
현재의 모습> 그 자체를 숭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니체가
삶과 생명을 찬양하는 것은, 그 안에 깃들여 있는 포텐셜(potential), 잠재
태(潛在態)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힘에 대한 의지> 그 자체가 곧
삶인 이유는, 이 의지가 바로 포텐셜에 이르게 해 주는 원초적 에너지인
가닭이다. 니체는, 이 에너지가 거세된 인간, 즉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맹송맹송하게 사는 인간은 차마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한 만한
상태가 아니라고 본다. 삶의 포텐셜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소
멸한 인생이기 때문이다. 삶과 생명의 포텐셜에 대한 니체의 이야기를

들어 보자.

아, 인간이여!

내겐 돌 속에 잠자고 있는 형상이 보여!

내 비전(독일어 ‘Bildern’)이 투사된 형상이 보여!

단단하고 추하기 짝이 없는 돌 속에 형상이 틀림없이 잠자고 있어!

그래서 그 형상을 가두어 놓고 있는 돌덩이 위로

망치를 미친 듯이 격렬하게 내리치네.

돌 조각이 사방으로 튀지. 그런들!

기어코 완성하고야 만다!

그림자가 내게 찾아왔거든!

내게 찾아왔던 것들 중에 제일 조용하고 제일 가벼운 것이 찾아왔거든!

(‘짜라두짜는 이렇게 말했지’, 24:31~24:33)

이렇듯 니체는 결코 욕망, 바이탈리티, 에너지 그 자체를 숭배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만약 니체가 삶과 생명의 바이탈리티 자체에 굴종했다면 그는 암세포나 바이러스나 아메바나 바퀴벌레를 “가장 훌륭한 생명체”라고 찬양했을 게다. 왜냐하면 이러한 생명체가 말로 “아무렇게든 사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생명력 자체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바퀴벌레의 생명력에 관해서는 “핵 전쟁 이후에 살아남을 유일한 곤충”이라고 하지 않는가!

또한 만약 니체가 삶과 생명의 바이탈리티 자체에 굴종했다면 전체주의 사회의 부속품으로 전락한 인간을 “가장 위대한 인간상”이라고 찬양했을 게다. 왜냐하면 1930년대 중후반의 독일에서처럼, 전체주의는 단기간에 사회 전체의 생명력을 하나의 초점으로 모아내는 데에 탁월한 역

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까닭에 나치와 같은 전체주의자들이 니체 사상을 우려먹을 때에는 반드시, “니체는 삶과 생명의 바이탈리티 그 자체를 숭배하고 찬양한 사상가이다”라고 주장한다.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니체는 생명이 가지고 있는 이 <힘에 대한 의지>에 갇혀 있는 위험성을 꿰뚫어 본다. 생명력 그 자체라고 부를 수 있는 암 세포가 죽음을 부르듯, <힘에 대한 의지>에는 우리 각자의 가치 기준과 윤리 체계를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성이 갇혀 있다고 말한다.

자네에게 위험한 것은,

자네가 만든 <선과 악>을 끝장내는 것은 강²이 아니야.

의지 그 자체,

<힘에 대한 의지> 그 자체,

지칠 줄 모르고 스스로 번식해 가는 <생명의 의지> 그 자체가 위험하지.

(‘짜라두짜는 이렇게 말했지’, 34:31)

2) 이 때 ‘강’은 <변하여 되어가기>(독일어 ‘Werden’, 영어 ‘Becoming’)을 뜻한다. 즉 인생의 프로세스, 과정 그 자체를 뜻한다

? 삶의 두 얼굴

이렇듯 니체의 관점에서 보면, 삶/생명은 두 얼굴을 가진 수수께끼이다. 하나의 얼굴은, <힘에 대한 의지>라 불리는 파워와 에너지이다.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말로는 ‘기가 센 사람’, ‘대찬 사람’, 문학 용어로는 ‘캐릭터가 강한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여 준다. ‘기’나 캐릭터는 반드시 바깥으로 표현되는 것은 아니다. 겉으로는 캐릭터가 강하거나 ‘기’가 센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지혜롭고, 인내심이 강하고, 집요한 사람이야말로 가장 맹렬한 <힘에 대한 의지>를 가진 인간이다. 전통적인 ‘어머니’ 캐릭터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 평생에 걸친 희생과 인내를 통해서 핏줄과 가문을 보호하고 일으키는 여인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 상이었다. 그러한 ‘어머니’에 대조된 아버지의 모습이 ‘바지’(헛바지), ‘깨비’(허깨비)로 불렸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삶/생명의 다른 하나의 얼굴은 우연성이다. 니체의 말을 빌리면, 삶의 ‘주어진 형태’는 ‘우연의 쪼가리’이다. 삶을 선택한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에게 삶은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연히 시작된 비즈니스일 뿐이다. ‘짜라두짜는 이렇게 말했지’에서는 ‘우연’이라는 단어가 스무 번 이상 나온다. 니체가, ‘주어진 우연’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삶을 얼마나 불쌍하게 여겼는지 한 번 살펴보자.

그래! 친구들! 사람들 사이를 다닐 땐
온전한 사람 사이를 다니는 게 아니라
쪼가리들, 팔다리들 사이를 다니는 기분이야.
학살이 끝난 전쟁터처럼
산산이 부서져서 쪼가리가 된 사람들 모습은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들어.

그렇다고 현재로부터 눈을 돌려 과거를 보면 좀 사정이 나올까?
천만에! 마찬가지로! 쫓가리들, 팔다리들, 끔찍한 <확률과 우연>들!
사람은 없어!

이제껏 땅 위에서 진행되어 온, 현재와 과거!

아, 친구들! 현재와 과거가 나에게서 가장 견디기 힘든 짐이야.

앞으로 오고야 말 것을 미리 내다볼 수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을 테지.

(‘짜라두짜는 이렇게 말했지’ 42:9~42:12)

바이탈리티와 에너지를 상실한 채, 우연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니체의 눈과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다. 게다가 그 사람들이 바로 당시 지구를 지배하고 운영하는 19세기 유럽의 잘난 백인들, ‘우리 유럽인들’이었다. 니체는 그 사람들의 귀청에 대고 이렇게 비꼬아서 말했다.

“네가 인간이라고? 그래 정말 인간적이구나! 너무나 인간적인 존재야!”

그래서 그의 책 중에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도 있다. 송고한듯 보이는 이 제목의 뜻은 ‘원숭이 같은, 너무나 원숭이 같은’³이다. 19세기 후반에 영장류에 관한 연구가 발달해 있었다면 ‘보노보 침팬지 같은’ 혹은 ‘오랑우탄 같은’이라는 제목을 붙였을 수 있다.

니체는 평생 ‘윤리철학’ 혹은 ‘도덕철학’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해 ‘무도덕(amoral)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니체야말로 도덕철학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화두를 제기했던 것이다. 하나는 “삶이란 무엇인가?”란 화두였다. 이에 대해 니체는 이렇게 말

한다.

응. 삶...그건, <힘에 대한 의지>야. 자기 자신의 입장과 관점을 가진 생명체의, 바이탈리티, 생명력, 에너지 그 자체이지. 맹송맹송하게 살 생각은 버려. 삶은 희생, 인내, 도전, 위험, 죽음을 수반하는 거야. 삶은 ‘웰빙의 전시장’이 아니거든.

또 하나의 화두는 “삶이 <되어질 수 있는 모습>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니체는 이렇게 말한다.

응. 그거, 만만치 않은 문제야. 너 자신의 가치 기준, 너 자신의 윤리 코드를 만들어. 그리고 거기에 네 인생 전체를 걸어. 그렇게 하고 묵묵히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저울에 올라 서야 하는 고비가 닥쳐. 네 존재의 무게와 존엄성의 근수를 달게 되는 <진실의 순간>이지. 그 때 너의 가치 기준과 윤리 코드를 지켜내면, 너는 필연이 되는 거야. 우연이 필연으로 바뀌는 거지. 어때, 좀 살벌한 진실이지? 하지만 그게 인생이야. 그런 인생을 살은 사람이 마지막에 외치는 소리가 뭔지 알아? “그게 인생이었어? 좋았어! 한번 더!”

니체는 삶이 마땅히 <되어가기> 과정(Werden)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짜라투짜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되어가기>는 가끔 <넘어서기, 건너가기>(Ubergang) 혹은 <내려가기> (Untergang)로 표현된다.

니체는 19세기 후반의, 자기 만족과 위선에 빠진 유럽인들이 삶의 이러한 역동성과 긴장을 망각해 버렸다고 보았다. 니체의 <초인> (Urbemensch)은, 염색체에 돌연변이가 생긴 험크 같은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당시 유럽인들은 ‘삶을, <되어가기>로 승화시키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을 뛰어넘어, 삶을 <되어가기>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다. 이제 니체 자신의 목소리를 한 번 들어 보자.

절벽 앞에 서서 현기증을 느낄 때에도 용기를 내면 돼.

인간은 항상 절벽 앞에 서 있는 거 아니야?

무엇인가를 본다는 것 자체가 항상 까마득한 절벽을 보는 것 아니야?

용기는 최강의 파괴자야.

용기는 연민을 파괴할 수 있어.

연민은 정말 까마득한 절벽이지.

인간이 생명을 깊게 들여다보면 볼수록 고통을 깊게 들여다보게 되거든.

하지만 용기는 최강의 파괴자야.

공격할 때 발휘되는 용기 말이야.

용기는 죽음마저도 파괴하지. 이런 말이 있잖아?

“아, 그게 인생이었어? 좋은데! 한 번 더!”

(‘짜라두짜는 이렇게 말했지’ 46:19~46:21)

3) 니체는 인간을 ‘빵이 붉은 원숭이’라고 불렀다. 리하르트 바그너는 이 책에 대해 ‘미친 놈이 쓴 책’이라고 평하면서 “이 책을 쓴 니체에 대해 내가 보일 수 있는 최대의 예의는 이 책을 읽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

했다 .

? 삶에 관한 원칙과 기준

미덕(virtue) 혹은 윤리(ethic)는 살 비린내가 뚝뚝 묻어나는 삶과 동떨어져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땅히 ‘삶’이라 불리는 단단한 기반 위에서 서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서양의 철학, 철학, 미덕, 윤리는 어느 순간부터 삶과 완전히 유리되어 대학 강단 위로 올라가 버렸다. 이 유리 현상을 최초로 명확하게 지적한 사람은 셸링(Friedrich Schelling)이었다.

모든 근대 유럽 철학에는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불충분한 점이 있다. 철학 안에 자연이 없는 것이다. 즉 근대 유럽 철학은 생생한 삶에 기초해 있지 않다.⁴

미덕과 윤리는 삶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뜻한다. 그리고 이때 삶은 철학자의 머리 속에서 그려지는 사변적이고 추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도전, 위험, 희생, 인내, 죽음을 무릅쓰는 <힘에 대한 의지>이다.

니체에게 있어 미덕과 윤리는, 사회나 공동체에 필요한 행동 기준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삶’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뜻한다. 니체는, 사회 혹은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의 윤리, 원칙, 기준을 정립해야 하며 그것은 개인의 영혼 밑바닥에서부터 나온 것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자기 자신의 정신을 한 조각도 따로 남겨두지 않고

미덕이 요구하는 정신 그 자체가 되는 사람을 저는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은 미덕이 요구하는 정신 그 자체로 변해서

다리를 <건너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미덕을 정열적으로 존중하고
자신의 미덕에 운명을 거는 사람을
저는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은 미덕을 위해 살고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여러 가지 미덕을 원하지 않는 사람을 저는 사랑합니다.
한 가지 미덕이 두 가지 미덕보다 큰 미덕입니다.
미덕은, 운명이 매달리는 밧줄 매듭이기 때문입니다.
밧줄 매듭 하나에 매달릴 때 제대로 매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짜라두짜는 이렇게 말했지’ 0:70~0:72)

따라서 미덕이나 윤리는 ‘나의 관점과 입장’을 내다버린, 이기심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이 점에 있어 니체는 칸트와 완전히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칸트의 정언명제(categorical imperative)는, “자기 자신의 협소한 이
익, 관점을 버리고 보편적 인간? ‘인간 일반’?의 입장을 취할 때에만 도덕
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니체는 칸트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에게 대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차라리 나가 죽어라. 그런 식의 태도는 삶을 거부
하는 입장이다.”

니체는 삶/생명이 각기 자기 자신의 입장과 관점(perspective)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기심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에너지, 매우 소중한
출발점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기심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 것.
바로 그걸 두고 미덕이라고 떠들어 왔지.

세상에 대해 넌더리를 내는 비겁한 인종들이나
<십자가에 붙어 사는 거미>⁵ 같은 인종들은
'이기심이 없는 상태'가 되기를 갈망해 왔지!

이제 그날, 거대한 변화의 날,
판결의 칼날이 떨어지는 날,
<위대한 정오>⁶가 이 인종들 모두에게 오지.
그때 많은 것이 밝혀져!

에고(Ego)야말로 건강한 것이며 신성한 것이라고 선언하는 사람,
이기심이야말로 찬란한 것이라고 선언하는 사람,
그게 예언자야.
그 예언자, 짜라두짜는 또 이렇게 선언해!
“봐! 오고 있다. 가까이 왔다. <위대한 정오>가 가까이 왔다!”
(‘짜라두짜는 이렇게 말했지’ 54:47~54:49)

니체는 이렇듯, 인간의 삶, 인간의 존재 조건을 냉정하게 직시했다. 그런데 니체의 시대, 즉 19세기 후반에는, 모스크바에서 런던까지 ‘민중’을 찬양하며 ‘연민’을 주장하던 풍조(예를 들어 안톤 체호프나 오스카 와일드의 문학?필자)가 지식인 사회를 지배했다. 니체는 이에 대해 넌더리를 냈다.

신의 연민이든, 사람의 연민이든
연민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짓이지.
도움을 줄 때, ‘나, 미덕!’이라고 따라붙는 연민보다는

도움을 주지 않으려는 편이 훨씬 더 고귀해.

하지만 요즘은 그 연민이란 놈이 좀팽이 같은 대중 사이에선

‘미덕 그 자체’로 불리는 세상이지.

위대한 불행, 위대한 흥측함, 위대한 실패에 대한

존경심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어.

(‘짜라두짜는 이렇게 말했지’ 67:25~67:26)

4) Friedrich Schelling, ‘Über das Wesen der menschlichen Freiheit’,
(München: Beck & Oldenbourg, 1927), p.248

5) 기독교 사상가들을 뜻함

6) 정오 에는 해가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어짐 . < 위대한 정오 > 는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을 뜻함 . 니체는 기만과 위선에 가득 찬 유럽 문명이 가혹한 ‘진실의 순간’ 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예감했음 .

? 관점과 경쟁

<힘에 대한 의지>는 도전, 경쟁, 희생, 인내, 위험, 죽음을 무릅쓴다. 그게 생명의 원초적 모습이다. 또한 모든 생명체는 각기 자기 나름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 입장은 곧 관점(perspective)이다.

우리말에서는 ‘관점’이라는 단어는 ‘원근법’이라는 단어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듯 느껴진다. 일본 사람들이 그 모양으로 한자어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어(perspective)와 독일어(Perspektive)에서는 ‘관점’과 ‘원근법’은 같은 말이다.



그림에 있어 ‘관점’을 표현하는 방법론을 확립시킨 사람은 파올로 우첼로(Paolo Uccello)이며 이를 파괴한 사람은 파블로 피카소는이다. 우첼로는 다빈치보다 약 60년 전의 사람으로서, 그의 원근법은 근대 서양화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가 되었다.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의 경우, ‘관점’은 왼쪽 광대뼈(보는 사람의 오른쪽) 모퉁이에서 캔버스에 대해 수직으로 세운 축 상의 한 점에 있다. 이 그림의 특징 중 하나는 한 사람 얼굴 안에서조차 ‘관점’을 적용하여 왼쪽 광대뼈 부분을 가장 가깝고 또렷하게, 오른쪽 부분은 멀고 흐릿하게 표현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이 캐릭터의 깊이와 심리적 복합성이 살아난다. 모나리자의 미소의 신비성은 왼쪽 광대뼈의 ‘돌출’에 의해 시작되는 것이다. 만약 이조 시대 우리 조상들이 모나리자의 그림을 보았다면 “아니 왜 짝눈에, 얼굴 왼쪽이 부어 오른 여자를 그렸나?”라고 생각했을 게다. 혹은 모나리자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서울 압구정동의 성형외과 의사라면 당연히 “왼쪽 광대뼈를 상당히 깊게 깎아 내야 하는 여자”라고 평했을 게다.

바이탈리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삶을 성실하고 진지하게 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각기 입장과 관점을 가지게 된다. 우리는 흔히 상대방에게 “입장 바꿔 생각해 봐!”라는 말을 하는데, 입장을 바꾸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자신의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장사하는 사람이 이문을 붙여 팔면서 “이 물건, 원가도 안 되는 가격에 드리는 겁니다”라고 말할 때, 파는 사람이나 고개이나 뻔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넘어가는 것은, 그가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사람은 마땅히 각기 자신의 입장과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당연한 진실에 대해 쇼킹한 점은, 니체가 이 말을 할 때까지 어느 철학자도 이 노골적이고도 위험한 진실을 이야기한 바 없다는 점이다.

입장과 관점의 상대성은 곧 진실의 다면성을 뜻한다. 니체 말고도 이러한 상대성과 다면성에 대해 이야기한 사람은 있다. 예를 들어 칼 마르크스. 그러나 그는 “개인의 입장과 관점”을 주장하는 대신에, “계급의 입장과 관점”을 설교했다. 이를 본받아 레닌은 “진실의 계급적 성격과 당파

성”을 이야기했다. 김일성에 이르면 “진실은 민족에 따라 바뀌며, 민족은 노동 계급에 의해 지도되어야 하고, 노동계급은 당에 의해 이끌어져야 하며, 당은 수령에 의해 영도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마르크스든 레닌이든 김일성이든 혹은 히틀러이든, 모든 전체주의 사상의 특징은, 입장과 관점의 상대성에서 출발한 후, 이를 계급 혹은 민족 혹은 수령의 입장/관점 하나로 ‘천하 통일’시키는 폭력성에 있다. “너의 눈알을 수령의 눈알님과 동일화(同一化, homogenize)시켜라!”

니체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한다. “네 입장/관점을 가져라!”?이 진실에서 출발하여 니체는, “<너인 존재>가 되어라!”(Become what you are!)라는 또 하나의 진실에 도달할 때까지 질주한다. 니체 자신의 표현에 따르면 ‘화살’이고 ‘직선’이다.

니체 사상은, 노골적인 동물적 진실에서 숭고한 실존적 진실에 이르는 아우토반(Autobahn, 고속도로)을 단숨에 질주하는 스포츠카이다. 히틀러는 자동차를 위한 고속도로를 만들어 화끈하게 자랑했지만, 니체는 그보다 50년 전에, 생명력 넘치는 동물에서 숭고한 개인의 개체성에 이르는 아우토반을 뚫고도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죽었다.

미덕과 윤리의 본질이 ‘한 개인이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정한 원칙과 기준’이라면, 관점과 관점, 입장과 입장, 미덕과 미덕, 윤리와 윤리가 서로 불꽃튀기는 경쟁과 다툼을 벌일 수 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조건(human condition)에 관한 진실이다?이런 생각을 ‘니체의 관점주의’(Nietzschean perspectivism)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진실이 바로 니체 사상의 출발점, 즉 동물적 진실이다.

니체의 ‘짜라투샤는 이렇게 말했지’에 자주 등장하는 전사(戰士), 싸움, 전쟁이라는 단어들은 모두 이 불꽃튀기는 경쟁과 다툼을 가리킨다. 물리적인 전쟁과 폭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니체 자신의 말을 한

번 들어보자.

자네는 송고해지기 위해서 위를 쳐다보지?

나는 밑을 내려다봐.

나는 이미 송고해졌으니까.

자네 중에 웃으면서 동시에 송고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

산 중에서도 가장 높은 산꼭대기에 오른 사람은

진짜 비극 혹은 상상 속의 비극,

모두에 대해 웃을 수 있어.

용기 있고, 담담하고, 코웃음 치고, <거침없는> 것.

그게 바로 지혜가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이야.

지혜는 여자거든. 지혜는 전사(戰士)만 사랑해.

자네는 나한테 말하지.

“사는 것은 힘들어!”

하지만 사는 게 힘들지 않았다면

아침에 뿌듯한 자부심을 느껴야 할 이유가 뭐지?

저녁에 체념을 느껴야 할 이유가 뭐지?

사는 건 힘들지.

하지만 너무 곱디고운 사람인 척 하지 마!

우리 모두는 상당히 튼튼한 수탕나귀, 암탕나귀들이거든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게 생겨먹었거든!

아침 이슬 한 방울이 매달려 있기 때문에

바르르 떠는 장미꽃 봉오리...

우리랑 장미꽃 봉오리 사이에 공통점이 무엇일까?

그래. 우리는 삶을 사랑하지.

하지만 삶에 익숙하기 때문에 삶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사랑에 익숙하기 때문에 삶을 사랑하는 거지.

사랑에는 항상 광증(狂症)이 좀 포함돼 있지.

하지만 광증에는 항상 일정한 방식이 있어.

나도 삶을 사랑해. 내 경우엔

나비나 비누거품 같은 것들이

행복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돼.

사람들 중에 나비나 비누 거품 같은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돼.

이 가볍고, 바보스럽고, 섬약하고, 애처로운

작은 영혼들이 날개짓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

나는 눈물이 나고 노래를 부르게 되지.

그래서 나는 춤추는 법을 알았던 신(神, 디오니소스?필자) 하나만 믿을

수밖에 없어.

(‘짜라두짜는 이렇게 말했지’ 7:11~7:21)

? 진실에 대한 의지

니체는 이런 뜻으로 말한다.

나는 무도덕(amoral)을 주장하는 미친놈이야. 그런데 하필이면 내가 왜 짜라두짜 이야기를 했을까? 짜라두짜(조로아스터?필자)야말로 세상을 선과 악의 대결, 즉 도덕적 진영과 비도덕적 진영 사이의 싸움으로 해석한 최초의 종교를 만든 인간이잖아? 나 같이 무도덕을 주장하는 인간이 스스로를 짜라두짜에 빗대다니 좀 많이 이상한 거 아니야? 너희는 그 점에 대해서 생각 안 해봤어?

원래, 사고친 놈이 그 사고의 내막을 잘 알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는 법이야. 짜라두짜는 대형 사고를 쳤지. 도덕과 비도덕, 선과 악이라는 대결축을 주장했으니까. 이 대형사고가 재앙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짜라두짜가 만든 대비책이 무엇인지 알아? 바로 진실이야. 진실이냐 아니냐에 비추어, 선과 악에 관한 기준을 바꾸어야 한다고 가르쳤지. 그래서 짜라두짜가 위대한 거야. 대형사고를 치면서, 그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알려 준 셈이지!⁷

짜라두짜와 마찬가지로 니체는 대형사고를 쳤다. 모두들 이야기하기 꺼렸던 동물적 진실을 까발린 것이다. 니체의 출발점은 이렇다.

생명체는 각기 자신의 입장과 관점을 가지고 있다! 생명의 바이탈리티는 희생, 죽음, 인내, 고통, 도전을 무릅쓰고 자신의 장악력을 기르기 위한 <힘에 대한 의지>, 그 자체이다! 자신의 관점과 입장이 무엇인지 헛갈리는 사람, 자신의 참된 이익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사람, 생명을 내걸

고 도전에 맞서 싸울지 모르는 사람?이런 사람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웰빙 전시장을 거닐고 있는 것이다. 값싼 연민을 가르치고, 민중을 내세우고, 계급을 내세우고, 혁명을 내세우고, 제국주의 국가⁸를 내세우고, 이기심을 버리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모두 <죽음의 장사꾼>들이다.

이 노골적 진실은 매우 사악한 목적에 사용될 소지가 있다.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왜곡하거나 감추면 고스란히 파시즘 철학으로 둔갑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힘(power, Macht)을 권력으로 해석하고, 제국주의적 국가주의에 대한 비판을 슬쩍 감춘 후, ‘개인됨’의 가르침을 뭉개버리고, ‘생명체’의 단위를 개인이 아닌 민족으로 바꾸고, 바그너의 독일 민족 지상주의로 포장하면 나치즘 철학이 된다. 파시스트들은 위 문장을 이렇게 바꾸는 것이다.

민족⁹은 각기 자신의 입장과 관점을 가지고 있다! 민족의 바이탈리티는 희생, 죽음, 인내, 고통, 도전을 무릅쓰고 자신의 장악력을 기르기 위한 <권력에 대한 의지>, 그 자체이다! 자신의 관점과 입장이 무엇인지 헷갈리는 민족, 자신의 참된 이익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민족, 생명을 내걸고 도전에 맞서 싸울지 모르는 민족?이런 민족은 역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이 만든 역사에 의해 지배당한다. 값싼 연민을 가르치고, 민중을 내세우고, 계급을 내세우고, 혁명을 내세우고, 유대인들의 세계 지배 음모의 일환인 공산주의를 내세우고, 이기심을 버리라고 가르치는 반(反)사회적 종자들은 모두 <노예됨의 설교자>들이다.

니체는 대형사고를 친 셈이다. 특히, 나중에 이 글의 부록에서 이야기하

듯이, 니체의 육필 유고에 대한 소유권 및 관리권을 행사한 누이동생 엘리자베드는 극단적인 독일 민족주의자, 반유태주의자였기 때문에 니체 사상의 변조는 매우 ‘합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엘리자베드의 꼼직한 범죄행각이 없었더라도 니체 사상에는 여전히 매우 사납고 편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니체 사상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은, 노골적이고 동물적인 진실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짜라두짜와 마찬가지로 니체 역시 자신의 대형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내놓았다. 그것은 <머리의 정직성>, 영어로 ‘integrity’, 독일어로 ‘Redlichkeit’이다. 다행히도 우리 말 개념어(즉 일본인들이 만든 한자 단어)에는 이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다. 이 단어를 우리 말 개념어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일본보다 앞서 서양 사상에서 가장 늦게 정립된 개념을 일본보다 먼저 확립시키는 셈이 된다. 필자는 이를 ‘머정’이라고 부르자고 제안한다. ‘머저리’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기분이 좀 나쁠 수 있다면, ‘대정’도 좋다. 한편으로는 ‘큰 정직성’이란 뜻도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가리의 정직성’이란 뜻도 된다.

<대정>이 아닌, 전통적 정직성(영어 ‘honesty’, 독일어 ‘Ehrlichkeit’)은 원래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참(true)일 필요는 없다. 참이라고 믿고 있는 것(what is believed to be true)을 말하는 것? 이것이 정직성이다. 이조시대 때 사람들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라고 믿었다. 그 시대의 정직한 사람은 “지구는 납작한 네모 판 모양으로 생겼어요”라고 진지하게 말했을 것이다.

인간의 지식이 많이 축적되어 있지 않았을 때에는 거짓말이나, 아니냐만 가지고도 충분했다. 그러나 문명과 지식이 복잡해 지니까, ‘가방끈 긴놈이 더 무서운 세상’이 되었다. 옛날 속담에 “처녀가 애를 배도 오만 가

지 이유가 있다”란 말이 있듯이, 거짓을 변호하는 데에도 갖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이 잘 알려지게 되었다. 한마디로 거짓을 참이라고 주장하는 방법이 진화한 것이다. 더 황당한 일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으로는 확신에 차서 매우 그럴 듯한 근거를 가지고 매우 논리적으로 생각을 전개한다는 점이다. 타블로 소동 때처럼.

예를 들어 천안함에 대해 ‘미군 오폭설’ 혹은 ‘좌초설’을 주장한 사람들이 그렇다. 그 사람들은 마지막에는, “미군 오폭이나 좌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북한의 소행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지 않나요?”라고 말한다. 참으로 신중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2002년 효순/미선양 교통사고에 빗대어 미군 철수를 주장하던 시위 혹은, 2008년 광우병 시위에 대해서도 그렇게 신중한 충고를 했었던가? 천만에! 천안함 때에 가장 앞장 서서 ‘지식인의 균형 잡힌 판단’을 주장하던 사람들 중 대부분은 2002년 미군철수 요구 시위나, 2008년 광우병 시위 때에는 “균형 잡힌 진실이란 아무 쓸모 없어! 대중이 모여서 항의하고, 그 항의를 축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할 뿐이야!”라고 믿었지 않았을까?

<대정>은 전통적 정직성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대정>은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점, 이해관계, 입장, 선입견, 편견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용기를 뜻한다. <대정>은 자기 부정을 감행하는 용기, 그 자체이다. <대정>의 정신은 이렇게 요약된다. “내가 무슨 대가를 치르게 되더라도 진실을 원한다! Truth at any price of mine!” 논리학에서는 ‘논리적 오류’(logical fallacy)를 가르치지만 심리학에서는 ‘인지적 오류’(cognitive fallacy)를 가르친다. 우리 마음 속에 존재하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려는 경향을 밝히는 것이 바로 ‘인지적 오류’에 대한 연구이다. 생명체는 신진대사(metabolism), 즉 에너지의 섭취와 소모

사이의 밸런스 시스템이다. 이제껏 알고 있었던 진실, 이제까지의 생존과 생활을 지탱해 오던 진실이 거짓임이 드러나게 될 때,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새로운 진실에 맞추어 새롭게 생각과 생활을 조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고생스럽고, 고통스럽고 에너지 소모가 많이 드는 일이다. 생명체의 메타볼리즘의 균형을 위협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만성적으로 먹거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살아 왔던 원숭이 시절의 유전자가 우리로 하여금 거짓을 선호하게 만드는 것이다. 게다가 거짓을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원숭이들처럼 떼를 이룰 수 있다면 더욱 더 그런 선호 경향이 커진다. “이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이 거짓일 리는 없잖아!” 간혹 떼로 몰려 나가서 거짓을 주장하다가 사람이 죽고 다치는 경우가 있다. 1968년 5월 프랑스 폭동 때에 그랬다. 당시 군중은 중국의 문화혁명에 대해 ‘위대한 진실, 위대한 진보’라고 칭송하면서 프랑스 정치 체제를 공격하며 평등을 요구했다. 2010년 가을, 프랑스 중고생들이 거리로 몰려 나와서 “아버지, 할아버지의 정년을 연장하면 우리의 일자리가 줄어들다”라고 난동을 부린 것보다 더 지독한 폭동이었다. 상점을 부수고 자동차에 불을 지르다가 경찰 진압 과정에서 몇 명이 죽었다. 떼가 보장한 진실성은, 이제 피에 의해 보장된 셈이다. “봐! 진실은 피로 쓰여 있어!”

진실이 불편하기 때문에 외면하는 사례 중에 진돗개의 경우는 매우 극단적인 흥미로운 사례에 속한다. 진돗개는 세계에서 몇 종류 안 되는 원시견(primitive dogs, 야생 본능이 유지되어 있는 개)에 속한다. 성깔머리가 사나운 원시견의 입장에서 본다면 주인, 즉 보스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척이나 위험스럽고 스트레스가 많은 일이다. 그래서 진돗개는 생후 2~4개월 사이에, 평생 한 명의 보스 밖에는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

서 진돗개를 분양 받아 올 때 남에게 부탁하는 것은 별로 현명한 일이 아니다. 심부름을 다녀온 사람 집에서 불과 3,4일 밖에 잠자지 않았는 데에도 그 사람을 보스로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나이가 들어 보스를 바꾸면, 진돗개는 식음을 전폐하고 죽든가 혹은 심장병이 걸려서 몇 년 지나지 않아 죽고 만다. 진돗개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충성스러워서 보스를 못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새로 보스를 맞이한다는 일이 너무나 위험스럽고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이어서 안 바꾼 것이지만, 사람들은 이를 두고 ‘충성스럽다’라고 말한다. 니체 말대로 관점(perspective)의 차이인 것이다. 사람 중에도 종종 진돗개처럼, 자신의 신념 체계가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후에도 생각을 안 바꾸는 경우가 있다. 필자는 이런 사람을 ‘진돗개’ 혹은 ‘인민군 하사관’이라고 부른다.

자신의 입장, 이해관계, 선입견, 편견을 뛰어넘어 진실을 직시하는 태도, 즉 <대정>은 막강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비즈니스이다. 이 용기를 니체는 <진실에 대한 의지>라고 불렀다. 니체가 말하는 정직(Redlichkeit), 혹은 <진실에 대한 의지>(Der Wille zur Wahrheit)는 모두 <대정>을 가리킨다. ‘짜라두짜는 이렇게 말했지’에서 이 두 단어는 수십 번 이상 등장한다.

<대정>의 반대말은 <자기 정당성>(영어 ‘self-righteousness’, 독일어 ‘Selbst-gerechtigkeit’)이다. 떼를 이루어 “우리 편은 도덕적, 윤리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야!”라는 착각에 도취된 상태를 뜻한다. 즉 <자기 정당성>은 본질적으로 <우리 정당성>이다. 히로병도 떼를 이루어 맞아야 황홀하듯, 이러한 도취 역시 항상 떼로 나타난다. 떼이기 때문에 감히 이런 오만한 도취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대정>이라는 개념이 19세기에 정립되었듯, <자기 정당성> 역시 그 무렵에 정립되었다. 그 이전에는 ‘바리새 같은’(pharisaical) 이라고 불렀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정통 유태교 신학자들의 이름이 바리새 (Pharisee)였다. 그들은 예수에 대해 “유태인의 종교와 정신을 파괴하는 천한 놈”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장 깊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확신했다. 근대의 완성기에 들어 지식인들이 ‘바리새 같은’이라는, 종교적 색채가 물씬 나는 단어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자 <자기 정당성>이라는 복잡한 단어가 만들어진 셈이다. 영한 사전에는 ‘독선’으로 번역되어 있다. 이 역시 일본 사람들이 엉터리로 만든 개념어이다. <자기 정당성>은 첫째, 반드시 떼의 차원에서 나타나며, 둘째, 정치적 증오를 수반한다. <’정당성 혹은 양심’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떼의 증오>가 바로 self-righteousness이다. 최소한 니체가 말하는 ‘selbst-gerechtigkeit’는 그렇다. 니체의 ‘짜라투샤는 이렇게 말했지’에는 ‘선량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무려 21번 이상 나오는 데, 이는 모두 “<자기 정당성>에 도취된 바리새 같은 놈들”이라는 뜻이다. 니체의 말을 한 번 들어 보자.

나는 그 사람들을 <떼> 몰이꾼이라고 부르지만
그 사람들은 자신을 <선량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이라고 부르네.
나는 그 사람들을 <떼> 몰이꾼이라고 부르지만
그 사람들은 자신을 <참된 신앙을 믿는 신자>라고 부르네.

<선량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을 봐!
그 사람들이 제일 깊게 증오하는 건 누구지?
그 사람들의 가치관을 적어 놓은 <율법서판>을 깨부수는 자,
파괴자, 법칙의 파괴자 아닌가?
하지만 그게 바로 창조자야!

(‘짜라두짜는 이렇게 말했지’ 0:139~0:140)

<선량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은 나를 두고 도덕의 파괴자라고 말하지.
내가 하는 이야기는 부도덕하다고 말하지
(‘짜라두짜는 이렇게 말했지’ 19:3)

노상 정의에 대해 떠드는 놈들을 절대 믿지 마!
그래! 그런 놈들의 영혼에는 꿀처럼 부드러운 부분만 빠져 있는 게 아니
야.

그 놈들이 자기 자신을 두고 <선량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이라고 말할
때
바리새와 똑같은 놈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한 가지 차이점은 그 놈들에겐 바리새와 달리, 아직 힘이 없다는 점이지.
(‘짜라두짜는 이렇게 말했지’ 29:19~29:20)

나는 자네들이 어떤 악도 저지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지.
그래서 자네들이 선택지기를 원해.

자기 발톱이 맹수의 발톱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 점 때문에
스스로 선택하다고 생각하는 나약한 종자들을 보면 웃음이 나올 뿐.
(‘짜라두짜는 이렇게 말했지’ 35:30~35:31)

형제들!

인류의 미래 전체를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자들은 누구지?

<선량하고 정의로운 사람>들 아니야?

가슴 깊이 이렇게 느끼고 말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거 아니야?

“선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

우리는 이미 선과 정의를 가지고 있다.

여전히 선과 정의를 찾고 다니는 자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사악한 사람이 끼치는 해악보다

<선량하고 정의로운 사람>자들이 끼치는 해악이 정말 해롭지!

(‘짜라두짜는 이렇게 말했지’ 56:193~56:195)

<선량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의 본성, 그들의 기질과 마음의 특징을 두 번째로 발견한 ¹⁰ 사람, 짜라두짜는 이렇게 물었어.

“이 사람들이 가장 깊게 증오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이 인종들이 가장 깊게 증오하는 건 창조자야.

창조자는 율법서판을 부수고 옛 가치를 부수는 사람이지.

이 인종들은 창조자를 ‘법 질서를 파괴하는 자’라고 불러.

<선량한 사람>은 창조할 수 없거든.

이들은 항상 종말을 시작하는 역할을 할 뿐.

(‘짜라두짜는 이렇게 말했지’ 56:201~56:203)

7) 니체 최후의 책인 ‘이 사람을 보!’(Ecce Homo). 이 책의 문체는 엄청나게 신랄하면서도 유머러스하다. 예를 들어 챕터의 제목조차 엉뚱하다. “나는 왜 이토록 똑똑한가?”, “나는 왜 운명인가?” 라는 식이다. 심지어 책 본문 중에는 “나의 천재성은 콧구멍에 있다” 고 한다. 거짓을 잘 알아 차린다는 뜻이다. 필자는 위 인용부분에 대해, 의역을 통해, 그 신랄하고 유머러스한 어감을 살리고자 했다.

8) 니체 시대의 유럽 국가는 제국주의 열강 경쟁 체제였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9) 19세기 내내 유럽 각국은 패권적 국가주의 /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했었다. 니체는 이에 대해 “나는 조국도 없고, 시대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

10) 첫 번째는 예수를 가리킨다.

? 우연이 운명으로 바뀌는 과정

이렇듯 니체는 때의 위선과 착각, 즉 <자기 정당성>에 대해 불 같은 증오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반대하여 니체는 <대정>을 제시한다. 철학자 중에 <대정>의 의미를 제대로 조명한 최초의 철학자였다. 니체의 개념은 철학보다는 심리학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자아의 성장과 성숙’에 관해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대정>이 ‘자긍심’(self-esteem)의 핵심 요소라고 본다. 심지어 심리학에서 ‘경험의 통합’이라 할 때 ‘통합’(integration)이라는 용어는, <대정>(integrity)과 동일한 어원을 가진 단어이다. 경험의 통합은 정신 건강의 핵심이다. 진실을 직시하는 용기, <대정>이 강한 사람은 통합력이 높은 사람, 즉 정신적으로 최강의 건강 체질을 가진 사람이다.

니체는 <대정>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겼다. 니체는 <힘에 대한 의지>를 <진실에 대한 의지>로 승화시키라고 말한다. 동물적 진실?생명의 바이트탈리티?을 넘어서 실존적 진실?개인의 완성?로 나아가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제 니체의 이야기를 들어 보자.

이 병든 자들¹¹은 정직(Redlichkeit)에 대해서도 불길 같은 증오를 가지고 있어.

정직(Redlichkeit)은 인간의 미덕 중에 가장 나중에 생긴 미덕이지
(‘짜라두짜는 이렇게 말했지’ 3:28)

자네에겐 <진실에 대한 의지> 하나만 있어야 돼.

<진실에 대한 의지>가 <힘에 대한 의지> 자체가 돼야 돼.

특히 <선과 악>에 대해서 혹은 <가치평가>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오직 <진실에 대한 의지> 하나를 밀고 나가야 해!
(‘짜라두짜는 이렇게 말했다’ 34:5)

너희, <깡> 사람 역시
내 의지가 밟아 나가는 통로의 하나, 계단의 하나에 지나지 않지.
그래! 나, <생명>의 <힘에 대한 의지>는
너희의 <진실에 대한 의지>를 발로 삼아 발걸음을 옮겨!
(‘짜라두짜는 이렇게 말했다’ 34:32)

니체는 시(詩) 형식의 ‘짜라두짜는 이렇게 말했다’를 출간한 후에 연달아 그에 대한 해설서를 내놓는다. 그 중에 1887년에 출간된 ‘도덕의 족보학’(Zur Genealogie der Moral)은 인간의 도덕이, 고대 사회의 ‘부족에게 이로운 것이 곧 선(善)’이었던 상태로부터, 기독교 도덕을 거쳐, 현대의 <대정>에까지 이른 과정에 관한 족보, 즉 ‘도덕의 진화 비밀’을 밝힌 책이다. 이 책에서 니체는 이렇게 쓴다.

“인간이 <진실에 대한 의지>를 스스로 의식하기 시작하게 됨으로써 (전통적) 도덕은, 너무나 당연히, 붕괴할 수 밖에 없었다.”

니체 사상의 도달점은 <진실에 대한 의지> 즉, 지적(知的) 용기이다. 자신의 이해관계, 입장, 관점, 편견, 선입견을 넘어서서 진실을 직시할 수 있는 태도, 즉 <대정>이야말로 니체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이다. 니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셈이다.

생명의 바이탈리티를 온 몸으로 꺼안아! 너의 참된 이익, 너의 관점, 너의 입장을 중시해!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돼! 생명, 삶?이 밖에 또 어

면 다른 출발점이 있겠어? 너의 삶을 소중히 여겨. 그를 위해 ‘너의 삶을 위한 원칙’, 즉 윤리와 가치 기준을 만들어 내! 흔히 미덕이라고도 불리지. 이 미덕은 너의 영혼 밑바닥에서 나온 것이 되어야 돼. 그런데 이 미덕의 맨 꼭대기에 <진실을 위한 용기>를 <왕초 미덕>으로 모셔야 돼! 이 왕초가 다른 모든 미덕을 거느리고 제어하도록 해! 진실에 도달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넘어서는 것! 이것이 최강의 파워거든. 이 최강의 힘을 가질 때 너는 비로소 <너인 존재>, 다른 말로 개인이 되는 거야. “손해 보더라도, 생명을 잃더라도 진실을 좇는다”라는 원칙을 가진 개인보다 더 굳세고 강한 존재가 어디 있겠어?

니체는 이렇듯 맹렬한 개인주의자였다. 미덕이든 윤리든 개인이,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선택하고 정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동시에 그는, <진실을 위한 용기>, 즉 <대정>을 <왕초 미덕>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개인들의 세계에서는, 각자의 미덕과 용기가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지만, <진실을 위한 용기>라는 공통의 언어가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니체의 <대정>은 일반적 윤리 코드 중 하나인 것이 아니라, <왕초 미덕>, 즉 메타-미덕(meta-virtue)이다. 공용 프로토콜(protocol)인 것이다.

많은 영화들이 “부패시킬 수 없는 개인”(the incorruptible individual)을 그린다. 영웅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격적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조직, 회사, 국가 기관의 음모 혹은 부패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찬양한다. 시고니 위버가 열연한 “에일리언” 같은 영화 역시 바로 이런 개인의 모습을 그린다. 외계 생명체를 보존하여 지구로 가지고 돌아가려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회사의 결정에 대항하는 여전사의 모습이다. 이러한 개인이 바로 니체의 개인(Nietzschean individual)이다.

묵묵히 일상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의 존재 전체가 걸린 고비에 처해지게 된다. 저울에 올라서게 되는 것이다. <대정>을 왕초 미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저울 위에서 <운명>으로 바뀐다. <우연>의 쪼가리로 태어난 생명이 <필연>, 즉 <운명>이 되는 것이다. 우연의 쪼가리가 운명이 되어 가는 과정? 니체는 이 비밀스런 과정을 발견한 것에 대해 가장 큰 자부심을 느꼈다. 그의 최후의 저작인 ‘이 사람을 봐!’(Ecce Homo)에는 아예 “나는 왜 운명인가?”라는 제목의 챕터가 있을 정도이다. 거기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우연이 운명이 되는 과정을 알고 싶어? 그렇다면 짜라두짜 이야기를 읽어 봐!”

11) < 자기 정당성 > 에 도취해 있는 때

? 미스터 들뢰즈! 아니거든요!

사상가 중에 니체만큼 위대한 사상가도 드물고, 니체만큼 고생한 사상가도 드물다. 이 고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니체의 사상을 비틀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히틀러의 나치즘이었다.

팔을 비틀 때에는 팔목이나 팔굽을 공략해야 하고 발을 비틀 때에는 발목이나 무릎을 노려야 한다. 마찬가지로 니체 사상을 비트는 사람들이 노리는 급소 역시 정해져 있다. 이 급소가 <힘에 대한 의지>가 <진실에 대한 의지>로 바뀌는 부분이다. 니체 사상을 비트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 1) <힘에 대한 의지>를 절대화, 신비화시킨다.
- 2) 진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여, <진실에 대한 의지>의 의미를 최소화시킨다. 진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계를 ‘주관적 관념의 산물’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 3) 그 결과 <힘에 대한 의지>만 남는다.
- 4) 이 때 ‘힘’(power, Macht)을 ‘정치적 힘’, 즉 ‘권력’으로 초점을 맞추어 좁게 해석한다.

이러한 작업을 하고 나면, 생명의 바이탈리티를 가리키는 <힘에 대한 의지>가 절대화되어 <권력에 대한 의지>로 둔갑하게 된다. 진실은 아무 중요성도 없게 되고, 권력과 떼만 중요한 존재가 된다. 권력은 때로부터 나오지 않는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니체는 생명의 자연스런 본성인 바이탈리티와 에

너지 자체에 굴종하여 이를 찬양한 바 없다. 만약 니체가 그런 사상가였다면, 그의 외골수 기질로 보아, 그는 아마도 암캐, 암소, 심지어 암낙지나 암문어와 사랑에 빠졌을 게다. 모두 생명 아닌가!

또한 니체는 정치 권력을 찬양하거나 숭배한 바 없다. 떼에 관해서는 혐오감을 곳곳에서 드러낸다. 예를 들어 니체는 ‘짜라두짜는 이렇게 말했지’에서, 떼(Herde), 대중(Menge), 많은 사람(Viele), 많고 많은 사람(Viel-zu-viele), 남아도는 사람(Uberflussigen), 인민(Volk), 어중이떠중이(Gesindel), 폭도(Pobel) 등 다중(multitude)¹²을 나타내는 8개의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중 인민만 점잖은 뜻으로 쓰이고 나머지는 모두 다중을 조롱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니체는, 너무나 뜨거운 나머지 하얗게 달아오른 백열(白熱)을 내뿜는, 맹렬한 개인주의자였다. 19세기 말, 제국주의의 광풍이 몰아치는 유럽 상황에서, 패권적 국가에 대해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국가가 없어진 곳,

그 곳에서 비로소 <남아돌지 않는 인간>이 시작돼.

꼭 있어야만 하는 인간의 노래가 시작돼.

유니크하고 다른 음악으로 대체할 수 없는 음악 같은

인간의 노래가 시작돼.

국가가 없어진 곳.

형제들! 그곳이 보여?

그곳에 초인에 이르는 무지개와 다리가 있는 게 보이지 않아?

(‘짜라두짜는 이렇게 말했지’, 11:32~11:33)

거의 존 레논의 나이브한 무정부주의 노래 ‘이매진’(Imagine)을 연상하

게 만드는 수준이다. 물론 니체는 무정부주의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당시의 좌파 급진세력에 대해 “세상에 대한 앙심에 가득찬 불개(fire dog)”라고 조롱했다. <세상에 대한 앙심>(Ressentiment)이야말로 니체가 <자기 정당성>만큼이나 증오하고 경멸했던 악덕이었다. 앞에 인용한 구절에서 니체가 공격한 것은 국가나 정부라는 제도 자체가 아니라, 당시 유럽의 제국주의적 국가주의였던 것이다.

자, 이제 <힘>과 <떼>의 찬양자들이 니체를 어떻게 비트는지, 니체 사상을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의 기초로 만들었던 들뢰즈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들뢰즈는 그의 유명한 책 ‘니체와 철학’에서 이렇게 말한다. (파란색이 들뢰즈가 니체를 인용한 부분)

One of the most important texts which Nietzsche wrote to explain what he understood by will to power is the following:

<힘에 대한 의지>라는 개념에 의해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는지 설명하기 위해, 니체가 쓴 가장 중요한 텍스트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The victorious concept ‘force’, by means of which our physicists have created God and the world, still needs to be completed: an inner will must be ascribed to it, which I designate ‘will to power.’”

“우리 (선배 세대의?필자) 물리학자들이 신과 세상을 창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던 <힘>이라는, 승리에 빛나는 개념이야말로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다. <힘>이라는 개념 안에는 내적(內的) 의지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는 이것(힘이라는 개념 안에 존재하는 의지--필자)을 ‘힘에 대한 의지’라고 부른다.”

The will to power is thus ascribed to force, but in a very special way: it is both a complement of force and something internal to it.

따라서 <힘에 대한 의지>는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힘 안에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 편으로는 힘을 추구하도록 만들어 주는 <힘에 대한 보완물>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힘 안에 존재하는 존재(힘의 구성물?필자)이다.¹³

그런데 들뢰즈에게는 매우 불행한 일이지만, 최근에 니체 문헌에 관한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들뢰즈가 니체를 얼마나 심하게 비틀었는지 속속 밝혀지고 있다. 니체 문헌은 1945년 히틀러가 망하기 전까지는 나치의 수중에 있었다가 1989년까지는 동독의 수중에 있었기 때문에 일반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 까닭에 “내 맘대로 해석한 니체”가 판쳤던 것이다. 특히 출판되지 않은 메모나 원고를 짜집기 해서 ‘니체의 작품’이라고 떠드는 약장수들이 많았는데 들뢰즈는 이 약장수의 가짜 약을 고스란히 받아들인 후에 이를 다시 증폭했다.

이른바 ‘권력에의 의지’(Der Wille zur Macht)라는 책이 그 대표적인 약장수의 가짜 약이다. 니체는 이 책을 쓴 바 없다. 사기꾼들이 니체의 메모와 노트를 짜집기 해서 엉터리로 만든 책이다. 들뢰즈가 ‘권력에의 의지’를 “니체의 가장 중요한 텍스트”라고 말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사기꾼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인가?

권력에의 의지든, 힘에 대한 의지든, ‘Wille zur Macht’는, 1883년에 출간된 ‘짜라두짜는 이렇게 말했지’에서 최초로 사용된 개념으로서 이 책에서 8번 등장한다. 또한 1886년에 출간된 ‘선과 악을 넘어서’에서는 무려 11 군데에서나 등장한다. 한마디로 니체 자신에 의해 멀쩡하게 출간된 책들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명백하게 <힘에 대한 의지>를 설명하고 있음에도, 들뢰즈는 굳이, 사기꾼들이 편집한 가짜 책, 즉 ‘권력에의 의

지’를 “가장 중요한 텍스트”로 꼽고 있다.

어디선가 좀 구린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은가? 이제 앞서 언급된 인용한 들뢰즈의 글로 되돌아가 보자. 들뢰즈의 말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1) 이제 내가 인용할 니체의 텍스트는, <힘에 대한 의지>에 관한 니체의 가장 중요한 텍스트이다. (이 텍스트는 ‘권력에의 의지’라는 책에 포함되어 있다)

2) 니체 가라사대, “선배 세대의 물리학자들은 <힘>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신과 세계를 창조했다. 그러나 이 개념은 아직 미완성이다. <힘> 안에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 나는 <힘> 안에 있는 의지를, <힘에 대한 의지>라고 부른다”라고 말씀하셨다.

3) 고로 <힘에 대한 의지>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에너지임과 동시에, 힘 안에 존재하는 <힘의 구성물>이기도 하다.

자, 이제부터 니체 문헌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 파올로 디오리오(Paolo D'Iorio, 이하 ‘디오리오’)의 최근 연구를 따라, 무엇이 어떻게 비틀려 있는지 살펴 보자. 디오리오는 니체 문헌 연구 사이트(www.nietzschesource.org)의 주도자이다.

첫째, 위 글에서 들뢰즈는, 니체가 “선배 세대의 물리학자들이 <힘>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신과 세계를 창조했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한다. 천만에. 문헌 연구에 의해 밝혀진 진실은 이렇다.

“신과 세계를 창조함” (Gott und die Welt geschaffen haben)이 아니라 “세계로부터 신을 제거함” (Gott aus der Welt geschafft haben)이다. 도대체 들뢰즈는 무슨 음험한 의도를 가지고, 이 사기를 “가장 중요한 텍스트”라고 떠받드는가?

니체는 광인도 아니고 권력과 피에 굶주린 사람도 아니다. 정신이 붕괴

하는 당일 날 아침에, 길 거리에 산보를 나갔다가, 마부가 말을 심하게 매를 때리는 광경을 보자, 그 회초리를 온 몸으로 가로 막아 말리다가 정신을 놓고 실신한 사람이다. 한마디로, 인생 최후 순간에 그가 한 일은, 말이 심하게 얻어맞는 것을 말리는 ‘위대한 과업’이었던 것이다. 그는 그 정도로 순수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갈릴레오나 뉴턴 같은 물리학자들이 세계를 창조했다”와 같은 극단적 망언을 하겠는가? 들뢰즈의 눈에는, 문맥은 보이지 않고, 그 문맥에서 이상하게 튀어나온 암세포 덩어리만 보이는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은 니체의 암세포가 아니라, 사기꾼들이 가져다 붙인 가짜 혹이었던 것이다.

둘째, 들뢰즈는 니체가 “<힘> 안에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한다. 천만에! “내적 의지”(innere Welle)가 아니라, “내부 세계”(innere Welt)이다. 니체는 “갈릴레오나 뉴턴과 같은 선배 세대의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힘>이라는 개념 안에는 일정한 세계관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머리가 정직한 사람은 무엇인가 해괴망측한 이야기가 나오면 앞뒤를 확인하든가 혹은 아예 접어서 한 구석에 처박아 둔다. 그러나 들뢰즈는 전혀 다르다. 그는 사기꾼들이 만들어낸 암 덩어리를 증폭해서 이러한 해괴망측하고 위험한 주장을 하고 있다.

“<힘에 대한 의지>는 힘/권력의 구성 성분이기도 하고 또한 힘/권력을 획득하게 만들어주는 에너지이기도 하다. 힘은 <힘에 대한 의지>에 따라 달라져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힘을 가지고 우리 선배 세대의 물리학자들은 신을 없앴을 뿐 아니라, 세계 그 자체를 만들어냈다. 뉴턴과 갈릴레오의 <힘에 대한 의지>에 의해 우주가 탄생한 것

이다.”

이런 식의 횡설수설은 지극히 위험한 사고 방식을 내포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런 식의 사고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런 게 존재하거나 하는 거야? 존재한들 기표(signifier)와 기의(signified)의 미로 속에서 과연 소통될 수 있거나 하는 거야? 중요한 것은 의지야. 떼, 다중(multitude)의 의지!”

들뢰즈 같은 사람들이 바로 프랑스의 68년 폭동을 주도했다. 이른바 ‘68세대’(Sixty-eighters)이다. 이들은 모택동의 문화혁명에 열광했고 거기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어차피 문화혁명의 참혹한 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떼의 의지가 중요한 것 아닌가! 들뢰즈와 함께 68 세대의 대표 선수로 꼽히는 푸코(Paul-Michel Foucault)는, 파리 제8대학 철학과의 초대 과장을 맡게 되자, 당시 극렬 모택동주의자였던 주디스 밀러(Judith Miller) 같은 광인을 비롯한 좌파 소장 지식층을 교수로 앉혔다. 주디스 밀러는, 68 세대 동지인 라캉(Jacques Lacan)의 딸로서 버스에서 만난 어종이 떠중이에게 학점을 준 후, 라디오 인터뷰에서 태연하게 “대학은 자본주의 제도이다. 내 목표는 대학을 지독한 개판으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했던 사람이다. 하기가 진실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다면, 대학은 개판이 될수록 좋은 것 아닌가!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자들이 현대 자연과학에 관해서 횡설수설을 만들어내다가 작살났던 사건이 바로 소칼(Sokal) 논쟁이었다. 최근 니체 문헌에 관한 진실이 속속 밝혀짐에 따라,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자들의 니체 해석이 또 하나의 소칼 사건으로 폭로될 가능성이 있다. 디오리오 같은

성실한 문헌학자들은 벌써 칼을 뽑았다.

이제 디오리오의 문헌 해석에 따라 위 부분을 편한 우리말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은, 명징한 말’이 된다.

“우리 선배 세대의 물리학자들은, <힘>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세계로부터 신을 제거했다. 그러나 이 승리에 빛나는 개념은 아직 미완성이다. <힘>이라는 개념 안에는 일정한 세계관이 내제되어 있다. 나는 이 세계관을 <힘에 대한 의지>라고 부르고 싶다.”

이를 나 같은 사람이 편하게 사용하는 말투로 바꾸면 다음과 같다.

“갈릴레오와 뉴튼이 만든 <힘>이라는 개념 안에는, ‘자연의 이치를 알아내어 자연을 활용하고 정복하겠다’라는 세계관이 깔려 있지 않은가! 이런 세계관을 만들어 내고, 이를 지탱하고, 이를 구체화시키는 심리적 에너지는 마땅히 <힘에 대한 의지>라고 불려야 하지 않은가!”

니체의 말은 이렇듯 명징하다. 디오리오는, 앞서 인용한 부분이 들뢰즈의 니체의 <힘에 대한 의지>에 관한 해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들뢰즈의 체계 전체가 위협받는다고 말한다.

“<힘에 대한 의지>라는 개념에 관한 들뢰즈 부류의 해석은 말짱 도루묵이 되었다. 그들의 해석은 아무런 문헌학적 근거가 없으며, 따라서, 아무런 학문적 가치가 없다.”¹⁴

<힘>과 <떼>를 절대화시키면 니체 철학의 본질이 왜곡된다. <진실>과

<개인>이 죽어버리는 것이다. 앞서 나온 구절에 등장하는 “우리 선배 세대의 물리학자들”이란 말의 생생한 의미를 알기 위해, 니체가 자연과학에 바치는 찬사를 한 번 들어보자. 그는, 자연과학을 개척한 사람들이 가졌던 용기와 <대정>(intellectual integrity)을 ‘짜라두짜’(Zarathustra)라는 이름으로 찬양하고 있다.

두려움이란 느낌은

자네 말처럼 모든 인간 행동에 공통된 근본적인 느낌이 아니라 예외적인 느낌이야.

알지 못하는 것, 아직 시도해 보지 않은 것에 대한

용기와 모험과 기쁨이 일반적인 느낌이지.

용기가 인간 선사시대 그 자체야.

인간은 가장 거칠고 가장 용감한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부러워했지.

동물들에게서 각각의 장점을 다 빼앗은 거야.

그렇게 해서 비로소 인간이 될 수 있었던 거지.

이 용기가 드디어

보다 미묘한 것이 되고 정신적인 것이 되고 지적인 것이 된 거지.

인간의 이러한 용기가 독수리의 날개와 뱀의 지혜를 갖추게 된 거지.

그리하여 오늘날에는 뭐라고 불리게 된 줄 알아?”

“짜라두짜라고 불리지!”

모두들 입을 모아 크게 합창하듯 대답하고서는 배를 잡고 웃었어.

(‘짜라두짜는 이렇게 말했지’ 75:20~75:23)

12) 스피노자의 글에서 나온 용어로서 , 우리말의 ‘백성’ 과 매우 유사함 .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자들은 옛 용어를 발굴하여 다시 사용하거나 혹은 새로운 용어를 만들거나 혹은 기존 용어에 전혀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데에 천재적인 소질을 보였음 . ‘ 다중 ’ 역시 스피노자의 용어를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자들이 발굴해 낸 것임 .

13) Deleuze, Gilles, ‘Nietzsche and Philosophy’, European Perspectives, New York : Columbia Univ. Press, 1983

14) Paolo D’Iorio, ‘Nietzsche on New Paths’

? 니체와 피카소

피카소는 하나의 그림에서 여러 개의 관점을 사용한다. 아래 사진의 인물 얼굴을 보면 서너개의 관점이 복합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우리 전통 그림 역시 그랬다. 즉 “하나의 그림은 하나의 관점으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강박증적 생각 자체를 파괴한 것이다.



Portrait of Marie-Thérèse Walther, 1937

진실에 대한 니체의 생각 역시 마찬가지였다. 니체의 관점주의 (perspectivism)은 관점에 따라 진실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는 점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니체는 ‘절대적 진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관점을 옮겨 가면서, 입체적 진실을 파악해 가는 과정?니체는 이 과정 자체를 <진실>이라 부른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 점은 니체가 자연과학의 방법론 및 자연과학도에 대하여 극도의 존중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인문

학에 있어서는, 자신의 전공분야이기도 한 문헌학(philology)를 높게 평가했다. 자연과학과 문헌학은 모두, 집요하게 진실을 추구해 들어가는 과정 그 자체를 중시한다는 특징이 있다. 니체의 자연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들어 보자. 아래 인용문은 짜라두짜가 거머리 연구자를 만난 광경을 묘사한다. 거머리 연구자는 땅 한가운데 있는 웅덩이에 누워서 거머리에 팔뚝을 내준 채 관찰하고 있다가, 그를 보지 못 하고 걸어오던 짜라두짜에 밝힌다. 여기에서 ‘정신의 양심’은 <대정>을 의미하며 ‘사내’는 거머리 연구자이다.

사내가 대답했어.

“저는 <정신이 양심적인 사람>이죠.

정신의 문제에 관해선 저보다 더 엄격하고 엄정하고 가혹한 사람이 없지요.

아, 물론, 제가 마음속으로 존경해서 배운 짜라두짜 한 사람 빼고서 말이죠.

여러 가지 일에 대해 반쯤 아는 것보다는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낫습니다.

다른 사람들 비위를 맞춰서 현인으로 인정받는 것 보다는

차라리 스스로 바보라고 생각하는 게 낫습니다!

저는 사물의 뿌리까지 파고듭니다.

제가 파고드는 사물이 큰 거든 작은 거든 그게 무슨 상관이죠?

제가 파고드는 사물이 높이든 하늘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죠?

땅 한 뼨이면 제게 충분합니다. 단단한 땅이기만 하면 됩니다.

땅 한 뼨이면 제게 충분합니다. 그거면 딛고 서기에 충분하지요.
참된 양심적인 지식의 세계에선 큰 것과 작은 것의 구별이 없지요.”

“음. 그러니까 아마 자네는 거머리 전문가인 모양이군?”

짜라두짜가 물었어.

“자네, <정신이 양심적인 사람>은 거머리를 마지막까지 파헤치는 모양
이군?”

그러자 밝힌 사람이 말했지.

“아! 짜라두짜 님! 거머리를 통째로 연구한다는 건 엄청난 거지요.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런 일에 도전하겠습니까?

제가 잘하는 것, 제 전문은 거머리의 뇌예요.

그게 저에게는 세계지요!

거머리의 뇌만 해도 하나의 세계예요!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 용서해 주시길!

저와 버금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여긴 내 집입니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거머리의 뇌, 이것 하나만 들고 판 지 얼마나 오래되는지!

이 분야에 관해선 미끈거리는 진실도 제 손을 못 벗어납니다!

여긴 제 왕국이에요!

이걸 위해서 전 다른 모든 것을 버렸어요.

이걸 위해서 전 다른 모든 것에 무관심해졌지요.
거머리의 뇌에 대해서 저는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것에 대해서는 깜깜 무식이지요.

제 정신의 양심은 저에게 한 가지에 대해서만 알 것을 요구하지요.
그 한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말 것을 요구하지요.
<되다 만 지식인>들을 보면 흐리멍텅하고 비현실적이죠.
구름 잡는 이야기나 할 뿐이죠.

저의 지적(知的) 정직성이 멈추는 곳에선
저는 앞 못 보는 맹인입니다. 거기서 저는 차라리 맹인이 되기 원해요.
하지만 제가 알고 싶은 분야에 관해선 정직해지고 싶지요.
지적으로 정직하다는 건
엄격하고 엄정하고 가혹하고 잔인하고 가차 없다는 것이지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당신, 짜라두짜 님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
이지요.
‘정신은, 생명을 가르고 파고드는 또 하나의 생명이지.’
그 말을 전해 듣고 저는 당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됐습니다.
저는 제 피를 바쳐서 저의 지식을 확장해 왔어요!”

“그래! 자네가 거머리에게 피를 바치는 걸 내 눈으로 봤네.”
짜라두짜는 중간에서 말을 끊었어. <정신이 양심적인 사람>이 팔에서
계속 피를 흘리고 있었기 때문이지. 거머리 열 마리한테 물렸거든.
(‘짜라두짜는 이렇게 말했지’ 64:18~64:31)

? 부록: 여동생을 잘 뒤야 한다

니체는 1889년 1월에 정신이 붕괴했다. 속설에는 젊어서 프랑스-프러시아 전쟁에 참여했을 때 옴은 매독균이 척추를 타고 올라와서 미쳤다고 하지만 이는 하나의 ‘설’일 뿐이다. 오히려 니체가 어렸을 때부터 심한 두통, 안통, 구토에 시달려오다가 결국 교수직조차 사임하고 말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의 병은 ‘후방성 자안와 수막종’(눈알 구멍 바닥에, 머리 뒤통수 쪽으로 자라는 물종기가 생기는 병)이었다고 추정된다.

정신이 붕괴한 후 잠시 어머니가 돌보았지만 파라과이에서 누이동생 엘리자베트가 귀국해서 니체를 가로채고 사고를 썼다. 엘리자베트는 니체가 그토록 혐오한 반유대주의에 물든 여자로서, 당시 꽤 잘나가던 반유대주의 운동가였던 피스터란 인물과 결혼해서 파라과이로 반유대 독일인 정착촌을 만들러 떠났던 여자이다.

이 여자는 니체가 막 널리 읽히고 주목 받기 시작하는 시점에 귀국했다. 이 여자는 남부르크(Namburg)의 니체 어머니 집에 ‘니체 문헌 보관소’라는 것을 차려 놓고 엉뚱한 짓을 했다. 니체 유고를 편집하고 날조해서 『권력에 대한 의지』라는 책으로, 자기와 니체가 함께 저작한 것이라고 출판했다

이 여자는 <힘에 대한 의지>를 <권력에 대한 의지>로 속악하게 해석하고 니체 사상을 반유대주의, 독일 민족주의, 전체주의 사상으로 둔갑시켰다. 히틀러를 비롯한 나치스 고위층은 이 여자를 ‘위대한 어머니’로 모셨다. 심지어 1935년 이 여자가 죽었을 때 니체 가족묘지 정중앙에 이 여자를 묻기 위해 니체의 시체를 옆으로 옮기기도 했다.

1950년대에는 더 웃기는 일이 벌어졌다. 니체가 대대적으로 ‘뜨기’ 시작하니까 “독일어 원본은 증발해서 없어졌다”고 주장되는 가짜 영어 ‘번

역본'이 나왔다. 『나의 누이와 나(My Sister and I)』라는 책이다. 니체가 정신이 마비된 상태에서 가끔씩 제 정신이 되어 지었다는 주장이다. 이 책은 니체와 누이동생과의 근친상간 관계가 소프트 포르노 (softporno)로 묘사되어 있다. 그래서 세간에는 니체가 마치 근친상간을 범한 사람인 것 같은 오해가 있다. 이 책이 가짜라는 점은 여러 철학자들에게 의해 밝혀졌지만 한 가지 단적인 예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다.

미국인이 내 저작에 대한 건전한 흥미를 가지기만 한다면, 디트로이트나 시카고나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멋진 장소에서 내가 강연할 기회가 있다면...

디트로이트는 자동차 왕 헨리 포드에 의해 발전한 도시이다. 1890년대에는 '멋있는 장소'가 아니라 먼지만 폴폴 날리는 촌 동네였고 유럽엔 알려지지도 않았다. 이 책이 가짜라는 것은 이미 1960년대에 밝혀진 일이다. 더 황당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책이 가짜라고 밝혀지고 나서 40년 가까이 지난 1999년에 '니체의 마지막 저작'이라고 소개되면서 출간되었다는 사실이다.